

GRACE 선교소식

2025년 8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간, 성도님들의 뜨거운 중보기도 덕분에 10일 금식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 일정이 많아 물 금식은 못하고 주스로 금식하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금식은 특별한 기도제목보다 자기 성찰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와 아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사명에 헌신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몸은 연약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금식하며 중보해 주시는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아론과 홀 중보기도 봉사 및 목사 부흥의 밤을 인도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로 불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은 가장 자랑스럽고 보배로운 동역자들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역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전도회가 정성껏 식사로 섬기고, 저는 말씀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나눌수록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번 금요일 금요성령집회를 통해 금식을 마치고, 주일부터는 GTD 209(남자)기를 인도하게 됩니다. 큰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TD 209 남자: 8/24-8/27
- 목포사랑의 교회 부흥성회: 9/3-9/5
- 국제 총회: 9/9-9/12
- 여수 은파교회 부흥성회: 9/16-9/18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 묵상하며, 예배 때마다 성령충만, 은혜충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Welcome
GTD

God Blessed You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

송교영 / 오효숙 선교사

에버그린 학교 건축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원래 계획은 1층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사한 후에 2층 공사를 하려 했는데, 후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2층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방해가 될것 같아서, 2층 벽돌쌓기 작업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붕공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이후에 화장실 공사와 플라스타 미장작업 등 공사는 2층 작업이 끝난 후에 계속 진행하려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귀하신 모든 동역자님들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여 도와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사를 차질없이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446-6200 gkcgmiusa@gmail.com

캄보디아

김동규 / 이승향 선교사

캄보디아 태국 국경분쟁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국경분쟁으로 해마다 작은 총격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위험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태국에서 국경봉쇄까지 하였고, 전쟁수준으로 몰려가 지금 국경 주민들이 피난을 나와 대피중입니다. 협상으로 이제 전쟁국면은 벗어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비전을 품고 이제 해외 비전트립을 갑니다. 첫발을 내딛습니다. 가난하다고 배운게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캄 학생들을 세계선교에 발을 띠게 하셨습니다. 한



국에서 더이상 예전처럼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들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픔입니다. 이제는 캄보디아에서 시작합니다. 전세계 곳곳에 건축된 선교선터들이 한국선교사들의 은퇴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려고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전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아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기도를 많이하는 용사들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있는 성령의 전사들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위해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휴식시간 틈틈이 건강음료를 만들어 팔아서 여행경비를 50% 준비하였고, 50% 후원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교 물품도 후원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어훈련과 사역 훈련을 진행중이고, 지금 여행자 전원 3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1국

장OO / 최OO 선교사

비자 신청서가 드디어 접수되었습니다. 올해 초 1국 내무부에 변화가 생기면서 반기독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분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대한 비자 수속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마이크 허커비 미대사가 이 내용을 보고를 받고 내무부와 지난 5월에 회의를 했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월 말에 나타나후 총리와 각 부서 장관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내용을 미디어에 흘려서 1국의 반기독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과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수속이 풀리기 시작

했고 저희 부부의 신청서도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접수시스템이 바뀌면서 추가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범죄기록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접수하면 곧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문검사를 미국에 가서 할 수 있고, 일단 비자가 나오면 1국 대사관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문화센터의 법인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7년 한국문화센터가 팔레스타인 내무부에 등록된 후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법인이 와해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조건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갱신인데, 일단 갱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법인을 새로 등록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

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며 인맥을 넓히고 지역사회를 더 알아가며, 역사와 문화, 상황과 현실을 배우고, 섬김과 전도의 기회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과 이곳의 상황으로 서안 지구, 특히 관광업에 의존했던 베들레헴의 경제는 몰락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수입이 사라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렌트, 전기세, 병원비, 약값,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소망과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조금씩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곳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사랑과 복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신동덕 / 신미희 선교사

젊은 부부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아주 젊어 보여 몇살이냐고 물어 보니 신랑은 27, 신부는 24. 웃음이 많은 이 부부가 나이보다 어린 것 같아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출발 터키에 잠시 들렀다가 걸어서 터키에서 한달만에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 온지 일주일도 채 안된 1년차 부부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무슬림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라다 어느 순간부터 무슬림 하나님을 버린 신랑.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간 적은 있지만 종교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 신랑. 저는 신신당부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공부가 있으니 꼭 나오라고. 해맑은 웃음이 많은 부부였습니다.

이란에서 기독교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터키에서 9년을 살다 그리스에 와서 소원하던 난민증을 받은 50대 부부. 그리스에서 살 길이 없게 되자 독일로 가서 난민으로 재신청했지만 그리스로 다시 추방되어 아테네에 온지 3일된 아이가 없는 부부. 다음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대학 2학기에 나오라고 아내가 자세한 설명을 들려줍니다.

많은 난민들은 북유럽을 최종 목표로 삼고, 그들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가볍게 감수한채 그날만을 기다리다 독일로, 영국으로, 핀란드로, 네덜란드로 어느날 떠납니다. 그리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칠수 없는 수단의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 EM 젊은 친구들이 아테네에 있을 때 화요일 성경공부모임을 갖다가 EM 젊은 친구들이 다 떠나면서 남게된 화요모임 난민청년들. Minor 한테 무료로 (정부)제공되는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서로들끼리 알게 된 이란, 아프간, 이라크, 알제리아 출신의 난민 9명이 화요성경공부에 모이는 난민 청년들입니다. 서로 다른 출신의 그들만의 소통언어는 영어였다. 이들을 즐겁게 떠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Hadi라는 이름의 아프간 Minor는 12형제 중 단 4명만이 현재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도착 난민신청시 자신을 17살 Minor 라고 속여 정부로부터 무료 아파트임대과 약간의 후원금을 받으며 살던 25살의 Hadi는 제일 마



지막까지 화요 성경공부모임에 남아 있다 영국으로 떠난 형제입니다. 10년전 독일로 가서 살고 있던 형을 잠시 보고 영국으로 건너 간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국으로 가기위해 먼저 프랑스에 도착, 며칠 있다가 Calais 에서 밀수업자의 지시에 따라 구명보트를 타고 English Channel 을 건너게 됩니다. 바로 몇년 전 같은 구역에서 구명보트를 타고 가다 다 빠져 죽어 사고가 났던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 무서운 길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승부수에 기쁨으로 도전합니다. 이렇게 떠난 난민들은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난민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같이 있을때 그렇게 한국음식이며 Pizza며 여러 맛있는 음식도 사주었건만...떠나고 나서는 직접 소식을 전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가끔은 무심한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는 언제 떠나나 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쓸쓸해집니다.

조금 정이 들러 하면 떠나고 또 새로운 얼굴을 익히고 서투른 이름도 익숙해 질려하면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우리 곁을 떠납니다. 미묘한 감정이 60대 선교사 부부에게 쌓여갑니다. 과연 이들중 누가 복음의 씨앗을 품었을까?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시겠지. 나도 함께 자라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부부를 견디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 주일날 예배시간이 다가오는데 교회에 성도가 몇몇 없으면 퀘스레 초조해 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오늘은 안 올까? 난민들은 교회보다 난민의 삶에서 너무나 쓸데없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들이 교회로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합니다. 그 사건들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난민을 기다리듯

이 나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그런 내가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2년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그동안 난민 가운데 3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 처음 세운 집사부부 Martin & Lara(Iranian Kurdish)는 1년 전 자녀 교육문제로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집사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 5월에 2명의 집사를 새롭게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Qambar(Afghan) & Ali(Iranian). 그중 Ali는 'Ali' 라는 이름이 많아서 그를 'Ben' 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한 유럽성경대학 3개월동안 통역을 내내 맡아오며 시간 전에 도착하는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아내 Shirin(쉬린)과 Ali는 우리부부를 Mommy, Daddy 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타국에서 의지할 곳 없고 우리의 나이가 자기네 부모 나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것 같습니다. 참 보기도문 좋은 인품의 사람들이었는데 난민으로 가난한 그리스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부자인 북유럽으로 향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몇일전 북유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면 약간의 용돈을 주고자, 떠나기 전날 한번 더 보고자 했는데 밀수업자로 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늘 새벽에 떠나는 바람에 결국 글자 메시지만 오후에 받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난 나는, 왜 그런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들 부부와의 헤어짐에 대한 눈물이 왜 계속 나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귀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나의 귀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진지하게 사랑하고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은혜한인교회 단기선교팀과의 동역

7월 초, 은혜한인교회에서 온 단기선교팀이 가라투를 방문했습니다. 잔지바르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곧장 이곳까지 달려온 일정이었지만, 피곤한 기색보다 이 땅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루샤 공항에 도착한 팀은 점심 무렵 가라투에 도착했고, 그날 오후에는 VBS 사역을 위한 사전 미팅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회와 함께 사역을 준비해 온 저희 센터 팀과 단기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았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같은 복음을 위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단지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라 아니라, 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모으는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응고롱고로 지역의 한 마사이 교회 방문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교회에서 마사이 성도들은 열정적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단기팀도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밖으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며 웃음과 기쁨을 나누었고, 팀은 교회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도 함께 전하며 섬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은 본격적인 VBS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은혜한인교회 단기팀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온 가운데, 저희 센터는 지역 교회와의 연결, 현지어 통역, 필요한 준비물 지원 등으로 협력했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VBS는 연령별 그룹으로 나뉘어 성경 중심의 활동들이 이어졌고,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들고, 함께 뛰놀며 복음의 메시지를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사역은 주일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예배와 사역을 마친 단기팀은 그날 밤 11시,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가라투를 출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여정 안에 담긴 사랑과 순종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Arise DTS 2025 졸업식

7월 18일, 저희 센터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Arise DTS 2025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곳 가라투에서 DTS가 시작된 것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네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는 말씀 아래 모인 훈련생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탄자니아인으로 구성된 이번 기수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개인적인 배경도 매우 다양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며 살고 싶다”는 갈망 하나로 함께 훈련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총 6개월간 진행된 DTS는 3개월의 강의(lecture phase)와 3개월의 전도여행(out-reach phase)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공동체 훈련을 통해 자





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간이었고, 이어진 전도여정에서는 복음을 나누며 그동안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보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졸업식은 그들의 여정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보냄의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함께한 사역자들과 지역 교회 리더들, 그리고 센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들의 삶을 축복하며 진심을 담아 격려했습니다.

저는 훈련 기간 동안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졸업식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영상의 끝에는 이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This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Go, and make Him known." (가서 하나님을 알리십시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된 DTS가 이제 이 땅의 청년들을 세우고 보내는 사역으로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에게도 깊은 감사와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리고 이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들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월 소식

8월에는 저희 센터가 운영하는 뉴비전스쿨의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졸

업하는 학생들은 2회 졸업생으로, 지난해 첫 졸업식 이후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자라난 열매들입니다. 졸업식 준비를 위해 교사들과 센터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은 9월 초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이음이의 수술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신 덕분에 수술 일정이 잘 잡혔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수술 전후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안전하게 놓이도록, 그리고 이음이가 수술을 잘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멕시코

송두선 / 양정연 선교사

지난 16일, 17일 2일간 이곳 티후아나 국경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7개 교회가 연합으로, 각 교회에서 기도와, 봉사 물자로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히 한국 라면과 떡볶이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주민들, 특히 미국에서 추방되어 온 많은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제목

1.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빛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길

2. 지역 교회들이 잘 연합해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수고한 많은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4.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시대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김OO / 이OO 선교사

미국은 우기가 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모든 것이 눅눅하고 곰팡이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매일 닦고 제거하지만 지칠 정도로 많이 생깁니다.

우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곳곳마다 홍수가 발생하고 또 물 웅덩이로 인하여 모기 파리가 창궐하여 열병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가시아바드 지역에 홍수가 나서 저희 교회도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와서 책상, 책장, 성경책 등이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빨리 대처하여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저희 각 교회들은 모기가 옮기는 뎅기 열병과 말라리아, 치킨구니아 등 열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부선 목사님 두달 된 신생아 요나단과 가족 4명 모두, 라디카 전도사님, 구두 목사님 가족 4명 모두, 람밀란 전도사님, 디딤 전도사님 사모 네하와 아들 디모데, 비크람 형제네 가족 모두, 산제이 목사님 세 아이들, 등등 정말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열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특히 구두 목사님네 네 가족은 지난 15일 전교인 세미나를 하고 난 그

다음날부터 앓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심방하고 기도해 주고 또 열심히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있었던 전교인 일일 세미나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세미나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였습니다. 직접 참여한 사람은 청장년들만 62명, 온라인 줌으로 참여한 사람은 63명, 모두 125명이 같이 금식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온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서 안되니까 하늘에서(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수건을 하나씩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정의 핍박으로 방학을 해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리뚜 전도사님은 신학교 개학을 일주일 남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 가까이 친구 집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엄마 아빠를 혼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할머니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학을 합니다. 늘 몸이 약해서 기도 제목인데 이번 학기도 열심히 공부하여 내년에 졸업할 수 있

도록 리뚜 전도사님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몇명의 사역자들이 내일 밤 기차로 바라나시를 방문합니다. 사역 지원도 하고 또 산제이 목사님네 가정애 문제가 생겨서 같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갑니다. 오는 주일을 바라나시에서 집회를 하고 다음주 화요일 델리로 다시 밤새 기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5명이 같이 가는데 무덥고 지치는 날씨에 건강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간부터 청년들 중심으로 영어 클래스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에서 한 단체가 저희 청년들을 위하여 장비를 대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미국 영어 선생님을 연결해 주셔서 공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단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더 좋은 직장 사회에 진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 불타오르고 더 뜨거운 것을 느끼고 경험하시는 매일 매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문

프레즈노 몽족선교

류영선 집사 / G22

저는 그룹 22를 섬기고 있는 류영선 집사입니다. 이번 여름, 프레즈노 몽족 선교를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프레즈노 몽족 선교는 우리 교회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여름 가족 선교입니다. 올해 선교에는 약 80명의 성도님들, 25가정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몽족 공동체 소개

저희가 섬기는 몽족은 원래 중국 남부, 라오스, 베트남, 태국 산악지대에 살던 소수민족입니다. 1960~70년대 베트남 전쟁과 라오스 비밀전쟁(Secret War) 당시, 많은 몽족이 미국 CIA와 협력해 공산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1975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라오스가 공산화되자, 수많은 몽족이 보복을 피해 태국 난민캠프로 탈출했고, 이후 미국 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역에 분산 배치되었으나, 농경 문화에 익숙했던 특성 때문에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착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아픔과 이방인으로서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며, 토속 신앙과 샤머니즘에 의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아이가 많아, 가난한 가정은 원베드 아파트에



7~8명이 함께 사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감당한 4가지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VBS 사역 - 몽족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
2. 시술 사역 - 어르신들께 한의시술, 피부관리, 눈썹 문신 등을 해드리며 그 시간을 활용해 복음을 전함
3. 노방 전도 - 지역을 다니며 VBS를 홍보하고 복음을 제시함
4. 주방 사역 - 약 100명의 몽족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

사역의 열매

우리 교회의 열정적인 성도님들이 2박 3일 동안 VBS 사역에 헌신한 결과, 약 100명의 어린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몽족 어르신들도 복음을 듣고 감격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프레즈노 몽족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몽족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선교에 쉽게 발을 내딛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 훈련의 장이 되었고, 가정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레즈노 선교를 가야 하는 5가지 이유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이 프레즈노에 꼭 가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1. 다른 선교지보다 선교비가 저렴하다.
2. 선교를 통해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성장한다.
3.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품고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4. 처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5.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우리 교회의 프레즈노 선교는 인큐베이터 같은 훈련 선교입니다. 7주간의 팀 멤버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고, 선교 현장에서 몽족을 섬기며,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선교의 첫발을 내딛는 순종의 발걸음이 됩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영적 군사로 기를 부으시고 사용하심을 보며 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은혜교회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공갈리 교회에서 진행된 VBS(성경학교)와 마사이 교회 사역 가운데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도록
2. 6개월간의 DTS 훈련을 마친 탄자니아 훈련생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3. 8월 말로 예정된 뉴비전스쿨 2회 졸업식이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4. 9월로 예정된 이음이의 수술과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며, 수술 이후에도 빠르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N국 김OO / 오OO 선교사

1. 바이블 칼리지 신입생 17명이 9월부터 수업에 들어갑니다. 잘 배우고 믿음의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학교 센타 2층 증축을 위해 물질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학생들 영성 훈련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더위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은행 계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부의 핍박으로 닫혀있습니다.
6. 아내 오OO 선교사가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중미 4개국 연합 AFA 1기 (8/31-9/6)**
S/L: 송종호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몽골인카운터#1 및 교회 개척선교 (8/31-9/9)**
S/L: 변재령 목사
디렉터: 이영국 집사
문의: 이한철 집사 (858-335-9415)
- **타지키스탄(두산베) TD (9/1-9/6)**
S/L: 최윤섭 선교사/김영환 목사
문의: 213-500-5344
- **키르기스스탄(비쉬켄) TD 22기 (9/12-9/23)**
S/L: 설성훈 목사
렉터: 송현근 장로
문의: 라병원 장로 (714-713-0948)

- **콜롬비아 목회자 AFA 5기 (10/4-10/11)**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T/M: 8/28, 9/11, 9/18, 9/25, 10/2
- **인도개척선교(인도 신학생들과 함께) (10/24-11/1)**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O/T: 9/2(화) 6:30pm, 웨딩채플
- **은혜동산(통일민 TD) 17기 (10/24-11/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해규 장로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 **태국 TD2기 (10/31-11/8)**
S/L: 송종호 목사
렉터: 정명섭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